

## 소비자 중심의 포장기술 개발기대



이 영 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 과장

이제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심정이 항시 그래왔듯이 웬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기대와 희망이 부푸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IMF 이후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이 선진국의 경기침체, 유가인상 등과 맞물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온 만큼,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 빛으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더더욱 기대가 큰 새해입니다. 포장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포장업계 종사자 여러분과, 여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월간 포장계” 독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번영과 행복이 함께하

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국내외의 사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술력으로 대변되었던 산업 경쟁력도 이제는 정보, 물류, 환경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이를 통한 지식기반이 중심축이 되지 않고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는 첨단 과학의 진전과 함께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이며 우리는 이미 그러한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과거와는 달리 기능성, 환경친화, 안전성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한 정보는 이제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시시각각 국제사회에 전파되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포장에 있어서는 국제적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자유로운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논란과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점차 국제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포장업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식품용 용기포장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준규격을 국제적 기준과 조화롭게 정비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포장업계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기술개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 새겨볼 때입니다.

그 동안 정부, 업계, 소비자 등 정보교류의 중요한 장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주신 월간 포장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포장업계에 꼭 필요한 정보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